

“우승후보는 현대모비스” 이구동성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18-2019 5GX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감독과 선수들이 챔피언 트로피를 앞에 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고양 오리온 추일승 감독, 이승현, 전주 KCC 스테이시 오그먼 감독, 이정현, 울산 현대모비스 유재학 감독, 이대성, 인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 박찬희, 부산 KT 서동철 감독, 양훈석, 창원 LG 현주엽 감독, 김중규.

“볼 농구” 진출에 성공한 프로농구 6개 팀 사령탑들이 이구동성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울산 현대모비스를 우승 후보로 꼽았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진출팀 감독들은 21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미디어데이에서 주저 없이 현대모비스를 우승 후보로 언급했다.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한 자리에 모인 6개 팀 감독들은 “자신의 팀을 제외한 우승 예상 팀을 꼽아달라”는 공통 질문을 받았다. 이 중 4명이 현대모비스라는 답변을 내놨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현대모비스는 총 43승 11패(승률 0.796)로 우승을 차지했다. 2위 인천 전자랜드(35승 19패)와는 무려 8경기 차였다. ‘어·우·모(어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진출팀 미디어데이
현대모비스, 올시즌 독주 43승11패 우승 차지
유재학 감독 “목표 우승...선수들 경험·열정”

차피 우승은 모비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6개 구단 감독들은 목표로 우승을 내세우면서도 현대모비스를 강력한 후보로 지목했다.

부산 KT 감독으로 부임한 첫 시즌에 4년 만에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끈 서동철 감독은 “정규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 모비스가 가장 근접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에서 10연패를 하고도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추일승 고양 오리온 감독도 “현대모비스를 뽑자니 우리 조라 어려워진다”면서도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다면 현대모비스를 뽑겠다”고 답했다.

KBL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은 스테이시 오그먼 전주 KCC 감독은 “LG가 시즌 막판 상승세가 좋았지만, 그래도 우승 후보는 모비스”라고 말했다.

인천 전자랜드를 정규리그 2위로 이끌어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유도훈 감독은 “시즌 막판 LG의 상승세가 좋았다. KCC의 멤버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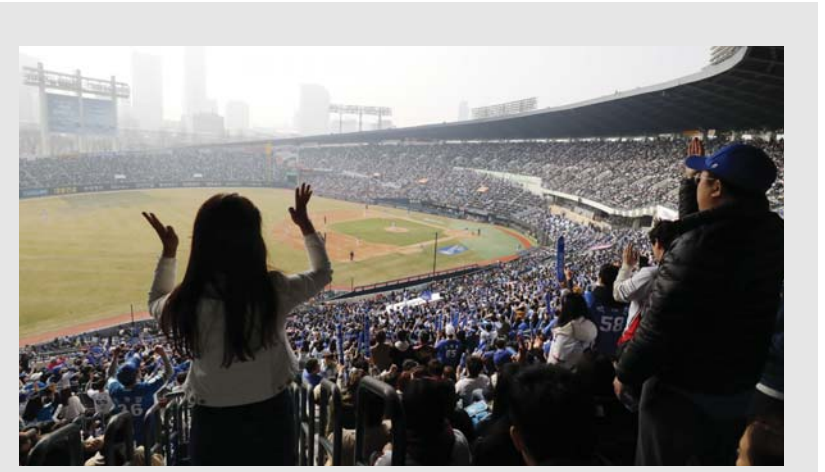
좋다”고 고민하는 척 하더니 “그래도 우승 후보는 현대모비스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현주엽 창원 LG 감독만 “현대모비스가 강하기는 하지만, KCC의 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홀로 현대모비스가 아닌 팀을 우승 후보로 선택했다.

계속해서 현대모비스라는 답변이 나오자 유재학 현대모비스 감독은 “결정했는데 여기서 끝내죠”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출사표를 던지면서도 유재학 감독은 “우리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험이 많은 양준근, 함지훈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이대성이 있다. 노장 선수들이 팔고 이대성이 뒤에서 밀면 충분히 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한껏 내비쳤다.

“그래도 한 팀을 꼽아야한다”는 말에 유재학 감독은 오리온을 우승 후보로 예상했다. “(추)일승이가 더 늙기 전에 우승 한 번 해야하니까”가 이유였다.



프로야구 빛낸 개막전 진기록은?

내일 오후 2시 5개 구장서 일제히 개막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정규시즌이 23일 오후 2시 잠실(한화·두산), 문화(KT·SK), 광주(LG·KIA), 사직(키움·롯데), 창원(삼성·NC) 등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한다.

6개월간의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에서 각 구단에게 승리의 의미는 남다르다. 역대 개막전에서 두산은 22승으로 10개 팀 중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고, 두산(1983~88, 2013~17)을 비롯해

개막전 투수부문에 장호연이 있다면 타자부문에는 한대화(한화·두산), 문화(KT·SK), 광주(LG·KIA), 사직(키움·롯데), 창원(삼성·NC) 등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한다.

6개월간의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에서 각 구단에게 승리의 의미는 남다르다. 역대 개막전에서 두산은 22승으로 10개 팀 중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고, 두산(1983~88, 2013~17)을 비롯해

개막전 투수부문에 장호연이 있다면 타자부문에는 한대화(한화·두산), 문화(KT·SK), 광주(LG·KIA), 사직(키움·롯데), 창원(삼성·NC) 등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한다.

두산, 역대 개막전 22승 최다...창원NC파크 역사적 첫 개막

1983년 OB 장호연, 데뷔 첫 경기 선발 나와 신인 첫 완봉승

한대화, 개막전 7홈런 1위·최다 타점(19)·3번의 1호 홈런

롯데(2011~16, 14 경기없음), 삼성(1990~94, 2001~05)은 개막전 최다인 5연승을 기록 한 바 있다. NC와 KT는 2016년부터 나란히 개막 3연승을 이어가며 올해 4연승을 노린다.

특히, 올 시즌 창원NC파크에서의 역사적인 첫 개막전을 앞둔 NC가 신구장 첫 경기이자 개막전 승리의 기쁨을 누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KBO 리그 역사상 OB의 프랜차이즈 스타 장호연이 개막전에 새겨놓은 역사는 선명하다. 기교파 투수였던 장호연은 1983년 MBC와 의 잠실 개막전에서 데뷔 첫 경기

에 선발로 나와 신인선수 최초 완봉승을 이뤘고, 이후 개막전 통산 최다 완투승(3승), 최다 완봉승 타이(2승), 최다승(6승), 최다 선발 등판(9차례) 등 역대 개막전의 한 페이지를 그의 이름으로 각인시켰다. 또한, 약 150년의 MLB 역사상 단 한번밖에 없었던 개막전 노히트노런을 KBO 리그 출범 6년 만인 1988년 롯데를 상대로 장호연이 달성했다.

한편, 올 시즌 정규시즌 공식 개막전은 2017년 한국시리즈 우승 팀인 KIA와 LG가 맞붙는 광주 경기다. KBO 정운찬 총재가 개막 선언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올 시즌 창원NC파크에서의 역사적인 첫 개막전을 앞둔 NC가 신구장 첫 경기이자 개막전 승리의 기쁨을 누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KBO 리그 역사상 OB의 프랜차이즈 스타 장호연이 개막전에 새겨놓은 역사는 선명하다. 기교파 투수였던 장호연은 1983년 MBC와 의 잠실 개막전에서 데뷔 첫 경기

에 선발로 나와 신인선수 최초 완봉승을 이뤘고, 이후 개막전 통산 최다 완투승(3승), 최다 완봉승 타이(2승), 최다승(6승), 최다 선발 등판(9차례) 등 역대 개막전의 한 페이지를 그의 이름으로 각인시켰다. 또한, 약 150년의 MLB 역사상 단 한번밖에 없었던 개막전 노히트노런을 KBO 리그 출범 6년 만인 1988년 롯데를 상대로 장호연이 달성했다.

한편, 올 시즌 정규시즌 공식 개막전은 2017년 한국시리즈 우승 팀인 KIA와 LG가 맞붙는 광주 경기다. KBO 정운찬 총재가 개막 선언을 할 예정이다.

NC 혼드는 부상

구창모·박민우 이탈

NC 다이노스가 개막을 앞두고 주전 선수들의 출부상에 울상 짓고 있다.

NC는 “투수 구창모와 내야수 박민가는 D(재활군)에 합류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창모는 지난 19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시범경기 1회초 투구 중 오른 윗구리 통증을 느껴 교체됐다. 검진 결과 우측 내복사근 손상 최종 소견을 받았다.

박민우도 같은 날 경기 전 훈련 중 오른 허벅지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고 오른 허벅지 염좌 진단을 받았다. 구창모와 박민우 모두 회복에 2~3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연이은 악재다. NC 중심타자 나성범은 지난 12일 롯데 자이언츠와 시범경기 중 좌측 내복사근 파열 진단을 받았다. 아직 재활 중인 나성범의 1군 복귀 시점은 불명확하다.

NC는 23일 삼성 라이온즈와 개막전을 치른다.

제14회 광양시장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성료

3일간 광양서 궁도인 6000여명 참가...5개 부문 겨뤘



광양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광양 유림정에서 열린 '제14회 광양시장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체육회와 광양시궁도협회가 주최하고 광양유림정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600여 명의

궁도인이 참가했다. 궁도인들은 단체전, 개인전(노년부, 장년부, 여무사, 실업부)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그동안 같고 닦은 실력을 맘껏 뽐냈다.

대회 결과 단체전은 '신안 용항정(권홍복, 김경하, 최문록, 고지성,

최경복)'이, 노년부 개인전은 주해웅(천안 천궁정)이, 장년부는 '소다니엘(장성 백화정)이 우승을 차지했다.

여무사 부문은 '오향숙(여수 무선정)', 실업부는 '이기호(진도 함덕정)'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102주년을 맞이한 유림정(柳林亭)은 남사장(南射場)과 1907년 북사장(北射場)이 건립됐으나 1917년 궁도장이 통합되어 유당공원으로 옮기면서 명명했다.

유림정은 '버드나무 숲이 어우러진 곳에 세운 궁도장'이란 뜻으로 많은 궁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삼식 체육과장은 “봄의 전령사인 매화꽃이 활짝 핀 광양에서 전국 궁도인 6000여명이 참석하여 광양매 화축제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실물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레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륵, 회현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